

인천광역시 글로벌센터(가칭) 운영

- ❖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이 인천시민으로서 생활하며 내·외국인 구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통해 글로벌도시 인천실현에 기여하고자 함.

I 제안 배경 및 내용

□ 제안 배경

- 국내(인천) 거주 외국인·고려인(재외동포) 등 이주민 증가
 - ※ 2023.6기준 국내체류 외국인 2,411,277명(전년 동월대비 17.3%증가)
-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소통 및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
-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·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및 교류기회 부족

□ 제안 내용 : 인천 글로벌센터 운영

- 종합어학당 운영
 - 외국인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
 - 내국인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와 문화이해 교육
- 선주민과 이주민간 교류기회 확대
 - 이주민과 내국인이 같은 장소에서 학습함으로써 접촉면 확대
 - 함께 어울리기위한 다양한 문화(음식 등)를 체험하는 행사개최와 소통 및 커뮤니티 형성 유도

II 현황 및 개선 방안

1. 외국인 및 이주민 관련 현황

- 기능별로 분산된 지원
 - 인천경제청(글로벌센터), 외국인노동자센터, 다문화 가족센터 등
 - 외국인노동자, 결혼이주민에 대해 각기 지원, 연계성이 없음.

- 한국인 관점의 교육운영
 - 각 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및 강좌 운영
 -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부족
- 집단거주 및 NGO중심 지원
 - 함박마을(연수동), 미얀마 마을(부평동) 등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돕는 장점도 있지만, 내국인과 분리되어 어울리지 못하게 되기도 함
 - 많은 NGO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하여 중복 혹은 누락발생

2. 개선방향

- 이주민 지원을 위한 총괄기능 필요
 -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있는 많은 외국인지원 총괄
-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다언어와 다문화로
 -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유지하되 선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, 다문화 인식교육 실시
-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 조성
 - 같은 장소에서 다국어 교육실시를 통해 접점 및 교류기회 마련
 - 집단거주지역을 벗어나 인천의 어디서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

Ⅲ

정책실현 방법

1. 조직 및 기능

-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기능강화(외국인생활지원팀)
- 인천광역시 글로벌센터 설립
 - 민간위탁운영중인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법인(출연)으로 전환
 - ‘외국인종합지원센터’명칭을 ‘인천광역시 글로벌센터’로 변경
- ‘외국인’에서 ‘인천시민’으로
 - 외국인을 인천의 새로운 ‘주민’으로 인식하고 정책 추진
 - 함박마을과 같은 집단거주지역을 벗어나 인천의 다른 지역에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서비스

- 내·외국인이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
 -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은 실시
 - 내국인에 대해 인식전환을 위한 다문화교육 실시(비주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외국인(이주민)과 같은 공간에서 실시)
 - 내·외국인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및 소모임 활동 강화
- 국가별 이벤트개최
 - 각 국가 및 문화별 특정일을 정하여(예: 베트남인의날) 축제개최
 - 해당 대사관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

2. 제도개선 등

- 중앙부처에서 기능별로 나뉘어진 외국인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총괄하여 주민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
 - 해당부처에 사람중심의 정책필요성 제시
- 소요예산의 경우 '인천광역시 글로벌센터'설립을 위한 비용외에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조정 및 재구조화하면 될것임

IV

정책효과

□ 사업효과

-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기관이나 시민사회 단체별로 분산추진되던 외국인지원에 대해 통합 정책서비스 가능
- 글로벌시대에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분위기로 전환
-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하는 실질적인 글로벌 도시 실현

- 인천경제청 글로벌센터
 -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가족 및 투자기업 관련자 대상
 -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및 강좌 운영
- 외국인종합지원센터
 - 시 위탁운영, 인천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원
 - 상담, 네트워크 구축, 한국어 교육·한국문화 체험, 다문화행사
- (다문화)가족지원센터(계양 등 9개)
 -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·상담·일자리 지원
 - 아이돌봄, 부모교육, 한국어교육, 통번역 서비스
-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
 - 고용노동부 위탁,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·통역·법률지원
 -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, 산업안전 및 생활법률 교육
-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
 - 함박마을(연수) : 고려인을 중심으로 러시아계 외국인 다수
 - 미얀마 거리(부평) : 미얀마 쿠데타 이후 증가
- 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NGO
 - 시민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인이나 조합 형태로 이주민지원
 - 상담, 통역, 한국어교육이나 사회통합교육, 다문화행사 등

※ 어울림이끌림(사회적협동조합), 한국이주인권센터, 국제이주민씨앗센터,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, 러시아어권지원센터, 다사랑문화교육원, 원고려인문화원, 한샘외국인지원센터, 글로리아상호문화센터, 보취무치카 다문화센터, 대한외국인지원센터, 까리따스이주민문화센터,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등